



당신의 틀안에 머물리이다. 시편 65,5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co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룻짙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 제1독서 | 예레미야 17,5-8

### 화답송



○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코린토 1서 15,12.16-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음 | 루카 6,17.20-26

**영성체송** |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 성가 | 입당성가 37 예물준비 218

영성체 466 파 건 400

##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조은비 베로니카	장은술 사비나
이효경	이성수 미카엘
손은경 소화테레사	송서희 로사
이하영 아오스딩	익명
임순남 엘리사벳	이영혜 안젤라
이순희	이경철 가브리엘
박승창 라우렌시오	박신영 안나
김명자 심포로사	조테레사
윤항구 알렉산더	송명자 리디아
이호순 안젤라, 양영자 스텔라	김애희 테클라
김순한 루시아, 김경숙 루시아	김애희 테클라
김경련 율리따, 김영복 아네스	김애희 테클라
이경자 벨라뎃타, 황경아 세실리아	김애희 테클라
문형민	홍범 요한
생미사	봉헌
정현숙 모니카 빠른래유	익명
김상균 다니엘 신부 건강	경가밀라
박현수 예비신자	한서희
이희경 쟈마 생신축하	이정현 헬레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2월 16일	백이백	이태주	장민우	장민우	이영혜	한서희 최예준
2월 23일	김진수	강호영	민덕미	민덕미	김영숙	한서희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2월 영명축일 축하드리며, 함께 기도해요~

2.2 모든 수도자 2.3 블라시오 2.5 아가타 2.10 스콜라스티카  
2.14 치릴로 2.23 폴리카르토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오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 13:2



▶제 67차 기초 성령세미나 (2.13~2.16)

성령 세미나에 참석 중이신 세 분 교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승애 클라라, 민재인 데레사, 양미숙 마리아

▶성지(聖枝) 회수

2024년 성지주일에 가져가신 성지를 회수합니다. 2.23(주일)까지 사무실로. 오는 재의 수요일(3/5)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교우분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 성서모임

첫모임: 오늘 2.16(일) 12시. 다미안홀 참석필수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대상: 세례받은 청년. 문의: 대표봉사자 유선욱 베로니카

카톡: sunwouk (714)809-9874

▶청년 겨울피정

일정: 3.15~16(1박 2일). 참가비: \$130. 뉴튼수도원

문의: 청년회장 진현중 빈첸시오 (929)660-4456

▶마르코 복음 필사 완료하신 분

예비신자 남승연, 예비신자 정서원 축하드립니다~☺

▶2025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레지오마리에"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매주일 8am 단장: 347-633-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매주목 6pm 단장: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매주일 11:10am 단장: 929-208-5147

♡모집 대상: 세례받은 남녀 교우(어른, 청,장년)

▶문서관련(전출/교적/각종 증명서) 업무

수녀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347-834-5784

2025년 희년 기도

미사 전 일어서 합송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경을 읽기 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 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수  
 사랑은  
 기적이니까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WINE &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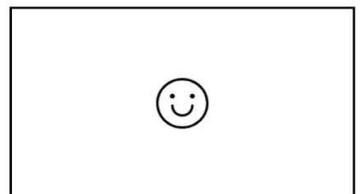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 세상과 '함께' 하겠다는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2025년 올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60주년'이다. 1962년에서 1965년까지 총 4회의 회기에 걸쳐 서구의 주교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주교들이 참석하는 세계공의회가 로마 바티칸에서 개최되었다. 요한 23세 교황은 이 공의회가 교리나 이단에 대한 공의회가 아니라 '사목적 공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전쟁과 독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기였고 시민권이 향상되고 그야말로 급변의 시대였는데 비해,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사회의 흐름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소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제는 'Aggiornamento'(아조르나멘토, 적응)이었다. 전례와 교의, 그리고 사목에 있어서 큰 전환을 이룬 공의회이다.

공의회에서 교회는 전례의 핵심 공간인 '제대의 방향'을 바꾸었다. 교우들을 등지고 벽천정을 향하여 거행하던 미사전례가 이제는 교우들을 바라보며 거행하게 되었다. '사목'이라는 말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전에 교회의 영역에서 세상 밖으로 확장되었고 사목의 주체도 '성직자'에서 '교회 구성원 모두'로 확장되었다. 이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다.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 복음의 빛을 밝히는 일이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 타락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 폭력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의 기쁨'을 선포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Gaudium et Spes)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복합구조를 가진 문장이므로 단번에 눈에 들어 오기는 힘들겠지만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 본다면 교회의 단호한 결의를 느낄 수 있는 명문장이다. 유심히 읽어 보자!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 신자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인 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야 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

60년이 흘렀다. 과연 지금 우리 가톨릭교회는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 우리 교회는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세상 안에 나아 가야 한다. 거기서 눈물 짓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2000년 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어야 한다. 하춘수 레오 신부